

지 상 법 석

생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로병사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에서
우리는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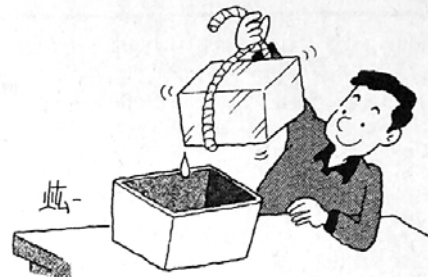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남보다 잘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심과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평등보다는 자유와 상대주의의 보다는
절대주의가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
유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사회가 함께하는
공생의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음이 들뜨고, 불안하고, 자기만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
라니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
지 않고는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
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날뛰는 마음을 다
스리기 위해 참선이다 열불이다 독경이다
경행이다 하는 수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수행 가운데 천태종을 중창
하신 상월대조사님은 중생들의 마음공부를
위해 관세음보살 열불정진을 하라고 가르
쳐셨습니다. 오탁약세에 근기가 낮은 말법
중생들은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오만 잡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을 잡기가 어려우르

출가한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수행을 제일
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종단에 적만
두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부처님
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종교도 혼란한 모습
을 보인다면 이는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
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수
록 종교는 제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행
승들의 피나는 노력을 일반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세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부처님
의 법을 배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
는 도가 높은 수행자 한사람이 어드레 보
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
니다. 이러한 도인이 있을 때 불자들은 모
든 정성을 다해 이러한 수행자들을 의호하
는 율타리가 되어 불법을 옹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로병사(生老病
死)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 굴



반야심경은 오온
개공을 실천 후 바
로 오온개공의 의미
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
게 된다. 짧은 경전
이어서 말을 아껴써
이 분명함에도 “색
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같은 뜻의 말을 네번 반복한다.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오온개공
다음 색즉시공이라고 한다면 덧붙여도
충분한데 같은 뜻처럼 들리는 말을 네
번 반복한다. 그것도 비록 분별지인(分別
智)이나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에게
네번씩이나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이말외에 다른 말은 경전 어디에도 반복
되는 말이 없다. 색불이공과 공불이색, 색
즉시공과 공즉시색은 분명히 다른 뜻이
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서 물이 되므로 물과 얼음이 얼음과 물
로 결합하여 빙를
없이 차이는 상태

로 한다. 작용없이
그대로 색이 공이
요 공이 색이다라
는 색즉시공 공즉
시색은 훨씬 긴 설
명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물리학자들은
1932년에 반입자
(反粒子)를 발견하
였다.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입자를 소립
자(素粒子)라고 부르는데 여러 종류의
소립자가 있다. 또 모든 종류의 소립자마
다 정확히 대응되는 반입자가 있다. 반입
자의 물리적 성질은 입자와 정확히 반대
가 된다. 예를 들면 전자의 전기량(電氣
量)을 “-”이라고 한다면 반입자인 양전
자(陽電子)의 전기량은 “+”이다. 그리고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은 꼭 같다. 물리적
진공을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여
러가지 비유를 들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현대물리학적 설명만 하겠다. 물리적 진
공이란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딱
있는 상태이다. 물질이 없는 빈상자를 생
각하면 좋다. 아무 것도 없이 텅텅빈이었
는 그 상자는 사실 입자와 반입자가 서
로 결합하여 빙를
없이 차이는 상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9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6

나와 남 비교하고 남탓하는 분별심 ‘불행의 씨앗’
내마음 들뜨면 사회도 불안 ... “자기마음을 봅시다”

자신의 것을 버린채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일은 사람
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은 그로 인한 결과는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또다른 내일
의 결과를 잉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항상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앞의 이익을 좇아
행동합니다.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것은 인
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근은 항
상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야기됩니다. 때문
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양심의 눈을 가리
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뜻하는 일
이 없게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자유경계사회이고, 경쟁사회인 오
늘날 다소 불가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적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이 해
를 입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
회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을 때

이 곧 욕심을 버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
지는 자신이 잘 압니다. 이러한 마음은 남
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
는 것이 보통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
까 사기를 당하고 속는 사람이 생기고, 거
짓된 마음으로 대해도 탄로나지 않는 경우
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마음
을 제멋대로 굴러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마
음은 다른 모습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고
밖으로 나타낸 마음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
라 포장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잘나고, 입은 웃이
아무리 화려할 지라도 평생동안 그 외모를
지니고 화려한 웃을 걸치고 있을 수는 없
는 겁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외형적
인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양
이 아닌 내면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통
해서만 인간은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생
각할 때 이 마음을 주인으로 한 본래의 자
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짧은
아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

로 열정을 하면서 정
신을 통일하는 방법이
오려야 알맞다고 생각
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
리는 종교이고, 일반
인들이 마음 닦는데
열불만 좋은 수행방
법은 없습니다. 수행
을 해야만 불자는 불
자다워지며, 불자로서
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수
행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불자를 자처하면서도 사찰의 언
저리를 서성이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 없죠. 부처님이 일
러르신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불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
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부처
님이 용맹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듯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이러한 진대 출가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하는지는 말할 필요
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불자들이 술선수범하여
몸과 마음닦는 수행으로
정법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
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매일 고통을 되집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상 깨
달음을 얻겠다는 열심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부딪치는
일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한 번 자
기 마음 속의 욕심을 버리고 흥분되고 들
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노력을 기용
여 봅시다. 이때 우리의 조용한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자리하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
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일 것
입니다.

‘입자-반입자 생성소멸’은 색즉시공 세계
‘얼음과 물’ 관계로는 ‘色即空’ 이해 불가능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물이 얼음이
이 되긴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는 일이
철코 없다면 물과 얼음이 얼음과 물이
라고는 못할 것이다. 이 때는 고작해야
빙불이수(氷不氷水) 즉 얼음은 물과 다
르지않다는 말을 쓰거나 보다 정확하
표현하여 빙출어수(氷出於水)라고 하여
얼음은 물에서 나왔다고 말할 해야할 것
이다.
반야심경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설한다. 물질은 공에서 나왔으므로 물질
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다시 물질은 공
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경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즉시
공, 공즉시색이라고 단언한다. 공에서
물질이 나오고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물질이 그대
로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그대로 물질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실로 엄청난
선언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의 뜻
을 네 마디의 말이 갖는다면 경전은 꼭
그렇게 네 마디의 비유한 말을 써야할
것이다. 이제 공의 의미를 축소시켜 물
리적 진공(眞空) 상태만 생각하고 색과
공의 작용을 살펴보기로하자. 즉 색불이
공 공불이색 이 두마디의 뜻만 살펴보기

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빙를이
없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다. 물론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한다고
해서 모두 진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
합한 상태의 에너지가 영(零)보다 크면
관측이 되고 영보다 작으면 즉 에너지의
표현하여 빙출어수(氷出於水)라고 하여
얼음은 물에서 나왔다고 말할 해야할 것
이다.
반야심경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설한다. 물질은 공에서 나왔으므로 물질
은 공과 다르지 않으며 다시 물질은 공
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경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색즉시
공, 공즉시색이라고 단언한다. 공에서
물질이 나오고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물질이 그대
로 공한 것이요 공한 것이 그대로 물질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실로 엄청난
선언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의 뜻
을 네 마디의 말이 갖는다면 경전은 꼭
그렇게 네 마디의 비유한 말을 써야할
것이다. 이제 공의 의미를 축소시켜 물
리적 진공(眞空) 상태만 생각하고 색과
공의 작용을 살펴보기로하자. 즉 색불이
공 공불이색 이 두마디의 뜻만 살펴보기

부처님오신날
전연색 화보를 곁들여 봉축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애중
사월 초파일 범보시용 소책자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해당사찰의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범회식순, 시주자명단
등을 원하시는 대로 인쇄해
드립니다. 별도 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오.
국판 36면 본문 100SW 사용 원색인쇄
범보시 보급특가 : 부당 1,000원
문의처/불교방송 사업부 ☎ (02) 705-5302~6
독립빌 : (02) 718-4625-9 부산 (051) 852-2220
서울제1사업소 : (02) 706-3502 대구 : (053) 755-9537
서울제2사업소 : (012) 353-1081 광주 : (062) 369-4848
서울제3사업소 : (012) 200-7300 원주 : (0371) 763-0857
불교방송 매점 : (02) 705-5307
전화 문의하시는 사찰에는 건본 1부를 무료로 우송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
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
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
제 방생 기도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